

BTS, 빌보드 싱글차트 한국 가수 최장기 유지 기록 경신



▲ 그룹 방탄소년단. 사진=빅히트뮤직

방탄소년단(BTS)의 히트곡 '다이너마이트' (Dynamite)가 빌보드 메인 싱글차트 '핫 100'에서 '강남스타일'의 한국 최장기 차트 진입 기록을 깼다.

빌보드가 6일 발표한 최신 핫 100 차트에서 '다이너마이트'는 30위를 기록하며 32주 연속 차트를 지켰다. 직전 주(26위)보다 순위가 다소 하락했지만 상위권 수성에 성공했다.

이로써 '다이너마이트'는 싸이의 글로벌 히트곡 '강남스타일'이 앞서 세운 한국 가수의 핫 100 최장기 진입 기록(31주)을 경신했다.

빌보드는 최신 히트곡 흐름을 반영하기 위해 20주 넘게 차트에 오른 곡이 50위 밖으로 하락하면 핫 100 차트에서 제외한다. 그러나 '다이너마이트'는 발매 이후 50위권 밖으로 떨어진 적이 없다.

지난해 8월 21일 발매된 '다이너마이트'는 한국 가수 최초로 핫 100 정상에 오르며 대중음악사에 한 획을 그었고, 이후에도 꾸준히 소비돼 대중적 히트곡으로 자리매김했다. 방탄소년단이 지난달 14일 '그래미 어워즈'에서 무대를 선보인 이후에는 2주 연속 순위가 오르며 '역주행'하기도 했다.

빌보드에 따르면 이 곡은 음원 다운로드로 순위를 내는 '디지털 송 세일즈' 차트에서도 통산 최다 기록인 18주째 1위를 차지하며 신기록을 썼다. 종전 기록은 루이스 폰시와 대디 양키, 저스틴 비버의 '데스파 시토'가 세운 17주였다.

TXT, 미국 토크쇼서 퍼포먼스 펼친다

보이그룹 투모로우바이투게더(TXT)가 미국 토크쇼에서 처음으로 무대를 펼치며 글로벌 행보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8일 소속사 빅히트뮤직에 따르면 투모로우바이투게더는 이달 16일 미국 유명 토크쇼인 '엘렌 디제너러스 쇼'에서 미니 3집 '미니소드1 : 블루 아워' 수록곡인 '날씨를 잃어버렸어' 무대를 펼친다. 투모로우바이투게더가 미국 TV 토크쇼에서 퍼포먼스를 선보이기는 처음이다.

'날씨를 잃어버렸어'는 10대들이 겪는 '코로나블루'를 다룬 곡으로, 당연하게 여겼던 일상이 사라진 뒤의 불안감과 혼란을 가사로 표현했다.

투모로우바이투게더는 방탄소년단의 소속사 후배로 풍부한 표현력과 청량감 있는 음악을 선보여 두각을 드러냈다. 2019년 3월 발표한 데뷔 앨범 '꿈의 장: 스타'와 일본 정규 1집 '스틸 드리밍'을 빌보드



▲ 투모로우바이투게더. 사진=빅히트뮤직

메인 앨범 차트 '빌보드 200'에 올려졌다.

지난해 5월에는 미국 MTV 음악 프로그램 'MTV 프레스아웃 라이브'에 출연해 미니 2집 '꿈의 장: 이터니티' 타이틀곡 '세계가 불타버린 밤, 우린……' 무대를 펼쳤다.

다니엘 헤니, 할리우드 영화 '서치2' 출연



▲ 다니엘헤니. 사진=에코글로벌그룹

배우 다니엘 헤니가 할리우드 영화 '서치2'에 출연한다.

7일 미국 매체 데드라인은 영화 '서치2'의 추가 캐스팅을 발표하면서 다니엘 헤니를 비롯해 니아 롱, 켄 롱이 합류하게 됐다고 보도했다.

앞서 '서치2'는 스티븐 리드의 출연 확정 소식을 전한 바 있다. 메가폰은 '서치'의 편집에 참여한 월 매릭과 닉 존슨이 잡는다.

영화 '서치'는 한국계 미국인 아버지가 실종된 딸을 찾는 내용을 그린 영화다. 모든 화면을 PC 화면이나 휴대폰, 방송 장면 등 전자기기 스크린으로 구현해 호평을 받았다.

다니엘 헤니는 어머니가 한국계로 1979년 미국 미시간주 카스시에서 태어났다. 2001년에 모델로 연예계에 데뷔해 밀라노, 파리, 런던, 뉴욕, 홍콩에서 패션 모델로 활동했다. 2005년에는 MBC 드라마 '내 이름은 김삼순'을 통해 한국에서 배우로 데뷔했다. 이후 2007년 영화 '마이 파더'에서 친아버지를 찾아주한 미군에 지원한 입양아 제임스 파커 역을 열연하며 청룡영화상, 대중상 등 각종 영화제에서 신인상을 휩쓸었다. 2009년에는 슈퍼히어로 영화 '엑스맨 탄생: 울버린'에 캐스팅되어 할리우드에 진출했다.

숫자퍼즐 정답

8	2	3	1	4	5	9	6	7
4	5	9	3	6	7	1	8	2
6	7	1	8	2	9	3	4	5
9	6	7	2	1	8	4	5	3
1	8	5	9	3	4	2	7	6
2	3	4	5	7	6	8	9	1
3	9	6	4	5	2	7	1	8
5	4	2	7	8	1	6	3	9
7	1	8	6	9	3	5	2	4

좋은신문 알찬신문 '타운뉴스'에서 함께 일할 직원을 모집합니다.

개인의 작은 권리 하나도 소중하게 여기는 인간존중의 정신을 바탕으로 재미있고 유익한 기사와 한인들의 이민생활에 꼭 필요한 정보를 싣고 격조높은 기사와 광고만을 게재하는 '타운뉴스'와 함께 신문을 만들어 나갈 분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광고영업직 0명**

제출서류 : 이력서 1부, 자기소개서 1부

E-mail: info@townnewsusa.com

14311 Valley View Ave. #202, Santa Fe Springs, CA 90670